39. 피티 궁전 (Palazzo Piti) 2

실버 갤러리, 혹은 실버 박물관으로 불리는 전시관에는 메디치 가의 보물과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내서에 보면 메디치 가가 직접 사들인 물건들과 직접 주문 제작한 물건들이라고 한다. 피렌체 산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과 멀리 동양에서 온 물건들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무심코 전시관에 들어섰다가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각종 진귀한 보물 들에 넋을 잃었다.

아이보리 상아로 제작한 각종 성물, 그릇, 물병, 벽에 거는 부조, 장식용 조각상, 오색 찬란한 자개로 장식한 그릇장 (은은한 한국 자개에 비해 자개의 빛이 훨씬 화려하고 다양했다),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한 미니어처 가구 장식품, 금박으로 휘황찬란하게 두른 거대한 거울,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공예품과 장식품, 유리 공예품과 그릇, 크리스탈과 금으로 만든 공예품과 그릇, 파란 라피스 아줄리 공예품, 보석 상자들, 금과 에나멜로 장식한 공예품, 카메오 공예품과 장신구, 뿔과 금은으로 장식한 공예품, 각종 도자기 등 메디치 가의 보물들이 끝없이 나왔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릇 전시실이었다. 그 전시실에는 메디치 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그릇 세트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릇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바로 그 곳 아니었을까? 그릇을 좋아하고 즐겨 모으는 주부들이 이 전시실에 와 보았으면 황홀 했을 것이다. 완벽한 세트로 갖추어진 자기 식기 세트와 사기 식기 세트가 색깔 별, 무늬 별, 용도 별, 원산지 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그릇 세트를 한꺼번에 보기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 개성 있고 아름다운지!

신기했던 점은 중국산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다. 그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고 중국산 도자기와 그릇들이 귀한 무역품들이었기 때문에 메디치 가에서도 엄청난 양을 사들인 것 같았다. 그렇게 다양한 중국 그릇 세트를 본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많은 그릇들이 단지 장식용이 아니고 메디치 가의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보물창고처럼 끝없이 쌓여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기가 질려 버렸다. 거의 무감각해질 지경이었다. 특이하고 화려한 물건들이 쉬지 않고 시각을 자극하는 것은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물건들이 이 정도인데 오늘 문 닫은 팔라티나 갤러리에는 얼마나 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을까? 이번에 볼 기회가 없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실버 박물관 출구 옆에는 메디치 가의 안주인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 많은 보물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피티 궁전의 안 살림을 도맡아 했던 주인공들이었다. 그녀들은 혈색이 좋고 체격도 좋아 보였다. 신분의 위상을 강조하는 듯한 화려한 옷차림에 영리하면서도 매서운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여왕 마마' 혹은 '공주 마마' 다워 보였다. 나는 그 위풍당당한 여인들이 피티 궁전에 앉아 이 거대한 살림살이를 호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소박하고 평범한 여인네들의 운명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이다.

R과 나는 실버 박물관을 나와 궁전 건물 밖으로 나왔다. 나른한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어서 코트 야드에는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고, 궁전 뒤 보볼리 가든에서 허브 냄새 섞인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코트 야드를 벗어나기 전에 아치형으로 공간이 형성된 실내 분수를 보았다. 좌우로 거대한 기둥이 두 개씩 서 있고 한가운데 꽤 큰 분수가 있었다. 분수 주위는 여러 개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영장같은 연못 한가운데서는 작은 아기 천사 뿌띠가 물을 뿜어 올리고 있었다.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주위를 둘러 보고 있는데 R이 '악, 엄마, 저것 좀 봐!' 한다. 물 속에 하얀 아기 천사 하나가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포동포동한 왼팔을 허공에 뻗고 몸과 얼굴을 반 쯤 물에 담근 채 빠른 속도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 "으악!" 나는 질겁했다. 아기 천사가 오고 있는데 귀엽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 내 영혼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니 아기 천사는 조각이었고 물 밑에 장치를 해 놓아서 물 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분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반대 쪽에는 아기 천사 둘이 물 속에서 서로 싸우는 듯한 조각이 또 있었다. 분수 물이 계속 움직여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아기 천사 뿌띠들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각품이 살아 있는 듯 보이다니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R과 나는 계속 움직이는 뿌띠들을 한참 보다가 코트 야드를 나와 보볼리 가든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